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간담회

- 인사말 -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아픔이 있겠지만, 역사를 바로 세워야만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 공동체를 배반하지 않는 민족정기를 세울 수 있다.

강대국들과의 경쟁에서 국운을 개척할 20년 내지 30년간의 시기에 역사를 진실 되게 정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교훈을 배울 것인지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진실에 근거하여 정통성 있는 역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친일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록에 의한 역사보다 지금 이 시기와 20~30년 후에 만들고 살아갈 역사가 중요하다.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 중에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북아 균형자론은 일본의 군비를 합법화, 강화하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일때 준비한 것이다. 동북아 정세 전체를 살피며 향후 방향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본이 잘못된 과거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공정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진실에 기초한 역사의 정리가 중요하다. 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가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달라.